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어느 날 갑자기 도시 전체에 '백색 실명'이라는 전염병이 퍼져서 아무 것도 볼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끔찍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단 한 가지 색으로, 오직 하얗게 보이는 전염병은 요즘 같은 때에는 상상조차 하기 두려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포르투갈의 작가 주제 사라마구(1922-2010)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썼다.

이야기는 도로 한 가운데서 일어난 어느 운전자의 실명으로 시작된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던 운전자는 갑자기 흰색으로 뒤덮인 시야에서 파란불을 볼 수 없게 된다. 한참 뒤에야 자신의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깨닫는다. 백색 실명의 황당함은 '홍채는 밝게 빛나고 공막은 하얗고 도자기처럼 단단해' 보여서 실명으로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괴이한 질병은 온 도시에 퍼지고 사람들은 작가가 '우유의 바다'라고 표현하는 흰색 세상으로 내몰린다. 단 한 사람, 안과 의사의 아내만 도시 전체에 퍼진 백색 실명에 걸리지 않는다. 실명, 우유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한 도시의

눈먼 자들의 도시, 맹목에 대한 은유

상황은 세상에 대한 은유이자 풍자다. 실명한 상태지만 사실 제대로 보는 것도, 그렇다고 아주 못 보는 것도 아닌 채, 세상을 오직 한 가지의 색, 흰색으로만 보고 판단한다. 이런 상황을 소설적 환상으로만 간주할 수 없는 것은, 흰색이 지배하는 질병을 통해서 현실에 만연한 거대한 맹목성과 무지 속을 질주하는 광기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 기이한 전염병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머릿속에 빛이 있었으니까. 빛이 너무 강해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빛은 대상을 드러내는 조건이어서 대상을 가리는 다른 빛이 의미 머릿속에 가득하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눈먼 자들의 도시 이야기는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은유이자 소름 끼치는 현실의 초상이다. 이 소설에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나 등장인물들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름 대신 서로의 소리를 듣는 것이 서로를 만나는 방법이다.

눈먼 도시는 수용소 안과 밖으로 나뉜다. 정부는 정신병원을 수용소로 만든다. 무장한 군인들은 눈먼 자들을 감시하고 학대한다. 수용소 안의 눈먼 자들은 식량 약탈을 비롯한 온갖 흉악한 범죄를 자행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증오한다. 수용소 밖에는 감시자들과 권력자들이 통제라고 부르는 냉소적인 권력놀이가 있을 뿐이다. 이 지독한 악몽의 유일한 목격자가 수용소로 가는 남편과 함께 가기 위해서 실명한 것처럼 위장한 안과 의사의 아내다.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다"라는 아내의 고백은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혼자만 본다는 것, 이것은 실명한 모두가 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지만, 또한 처참한 불행과 저주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오롯이 안과 의사의 아내의 판단과 행동에 달려 있고, 단 한 사람의 목격자라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안과 의사 아내의 실명한 집단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관계 중심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스스로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일을 자청하면서까지 스스로 모두의 '눈'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몸과 소리가 되어서 실명한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한다. 세상의 수많은 질병 중에서 가장 불행한 질병은 은유적 의미의 실명이기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잘 볼 수 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뜩 자들의 도시만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파국 너머로 향하는 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탁월함 가운데 최고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은유를 잃어내는 능력 또한 최고의 탁월함 아닌가. 이 능력은 이미 들어와 있는 빛으로 인해 실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자신의 색에 예측시키지 않는 것이며, 상황의 뒤틀림을 읽는 것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연결하는 은유의 힘으로 내세운 이름 아래 가려진 것들을 보는 것이다. "가장 심하게 실명한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작가의 말에서 안과 의사가 내가 보는 것을 곧 삶으로 여긴 이유를 듣는다.

수필의 향기

숨어 있는 말



김향남  
수필가

오랜만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 하루 일정으로 다녀 오기엔 먼 거리였으므로 새벽에 출발하자고 했다. 저녁을 마친 후 몇 가지를 점검하고 있는데 그의 손전화가 울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그가 반갑잖은 듯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입꼬리는 잔뜩 올라가 있었고 내 표정은 썰렁 일그러졌다.

"급방 올게."  
그는 언제나처럼 한결같은 약속을 남기고는 곧장 문 밖으로 사라졌다.  
"아이구,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마세요. 아, 그래도 오늘날만큼 진짜 꼭 지켜야 돼. 알았지? 새벽에 출발해야 하니까. 술도 먹지 말고, 꼭!"  
내 입에서도 자동화된 말들이 쏟아졌다. 금요일 밤 이런 어김없이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가 밤마실을 즐긴 지는 꽤 되었다. 같은 통로에 살면서도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얼마 전 안면을 트더니 급기야 한 주만 안 만나도 안달 나는 사이가 되었다. 고만고만 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여자들이야 더러 만나기도 했지만 남자들까지는 아니었다. 우연히 위아래층 부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서 오히려 그들이 더 가까워져 버렸다. 또래 아이들의 아빠로, 남편으로, 가장으로 그리고 같은 세대라는 공통점이 더해져 순식간에 동지가 되어버린

것이였다. 만나기만 하면 날 새는 줄도 몰랐다.  
아내들의 불만이 없을 수 없었다. 말인즉슨,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 시간, 그 자투리 시간을 좀 이용해 보겠다는데 그것도 허용이 안 되느냐 했지만, 그게 어디 그런가? 나는 괜찮다 쳐도(절대 괜찮지 않지만) 주말부부인 워킹은 사정이 다르지 않은가 말이다. 이걸 아니다 싶어 아무리 제동을 걸어 봐도 그 당사자가 더 원하는 일이라니 어쩔 수도 없었다. 아내들의 눈총을 뒤로하고 그들은 모처럼 해방구를 맞은 듯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말거리는 넘쳐났고, 술도 좀 했었다, 기분도 좋았다, 그깟 잔소리쯤은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었다.

하연간, 깜빡 잠들었다 깨어 보니 새벽 세 시가 다 되었다. 아니, 아직도?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급기야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렇거나 당부를 했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니. 어디 문을 열어 주나 바라. 나는 찰칵 현관의 걸쇠까지 걸어 버렸다.  
얼마쯤 지났을까. 내 귀는 더욱 쫄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갑자기 불길한 느낌이 밀려왔다.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귀를 대 봐도 아무 소리도 안 들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겁도 났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허 참, 그는 무릎 사이로 고개를 숙인 채 잔뜩 엎드려 있었다. 대문 앞이 자기 집 안방인 줄 아는가. 주춤주춤 그를 흔들여 보았다. 그는 몸도 목소리도 배배 꼬여 가누지도 못했다. 나는 찰칵 그의 등을 후려했다.

"아이구, 호랭이 물어 가네. 무등산 호랑이는 뭐 먹고 사나 몰라."  
고주망대가 된 그를 붙들여 겨우 침대에 눕혔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일러줬

만 마누라 말은 쿿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니까. 술이라도 좀 털 먹든지. 아이구, 저 화상. 무등산 호랑이는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네. 정말!"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던 소리다. 호랑이 물어 가네? 뭘 먹고 사나 몰라? 하하,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주절주절 퍼붓던 말의 출처는 다름 아닌 엄마라는 사실이었다. 엄마도 그랬었다. 아버지와 싸우고 나면 '아이고, 대룡산 호랑이는 뭘 먹고 사나 몰라'로 시작되는 긴 사설을 쏟아 놓곤 했었다. '대룡산'(大龍山)이 '대룡산'이 되고 '호랑이'가 '호랭이'로 바뀐 엄마의 사설은 원색의 리듬을 타고 가파르게 울었다가 사부작이 내려앉곤 하였다. '대룡산 호랭이'를 내세워 엄마는 치솟는 화를 녹이고 뒤틀린 것들을 조율했다. 설거지를 하거나 방망이질을 할 때도 그랬다. 그렇게 한바탕 아무지게 쏟아내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평상으로 돌아오곤 했다.

'대룡산 호랭이'는 비단 엄마만의 것은 아니었다. 인근에선 알아주는 명문고를 나왔다는 이수 아버지는 이도 저도 아닌 술주정뱅이였다. 그 집을 지날 때면, '아이고, 저 웬수. 대룡산 호랭이는 뭘 먹고 사나 몰라.' 가난에 허덕이는 이수 엄마의 긴 하소연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그녀 역시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의 굽이 굽이를 더러는 맞서 싸우는 것으로, 더러는 돌아서서 구시렁대는 것으로 그렇게 넘겨던 것일까. 딱히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몇 마디 해 대고 나면 그래도 가슴은 후련했을까. 그것이 강박한 삶의 질곡을 넘여가는 방법이이었을까?  
그나저나, 수많은 질타에도 불구하고 '알았어, 알았대니까' 구령이 담 넘어가듯 굶어떨어지고 만 저 화상을 눈감아 줘, 말야?

기고

북동과 광주 구도심 개발의 방향성



김도연  
광주시 북구 북동 주민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현재 크게 변화하는 중이다. 하지만 최근 그 변화가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만 6천여 명 이상의 젊은 인구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었다고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이지만 또 다른 부분은 근로시간이 줄어 들면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그 여백을 채울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하고 놀고 볼거리를 다른 이에게 공유하는 문화는 따로 갈 수 없는데, 광주는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살고 싶고 다른 지역에서 오고 싶어 하는 광주광역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상업 지역마저 아파트만 가득한 획일화된 주상 복합 상가로 개발을 허가해야 할 것인가? 과연 그곳에서 다양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  
정비의 주목적인 상업 지역 구도심의 활성화는 상업

지역답게 정비해야 한다. 장소성과 역사성을 매개로 하는 도심 관광자원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광주 도시 기본계획에서 원도심 역사, 문화, 관광의 주축을 이루는 역사문화 벨트 조성도 '보여 주기식 도시계획'에 그쳐선 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의 관광은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상설 공연과 같은 '이벤트식 전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전시 테마 연구와 더불어 주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축물 하나에도 미적인 특징을 부여하고 그 사이를 거니는 보행자의 공간에도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공간의 혁신을 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외국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9월 광주시가 바뀐 광주 구도심 북동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2차 경관위원회 심의가 이달 중순으로 정해졌다. 뒤로는 동계전, 앞으로는 금남로를 품은 중심 상업 지역인 북동은 광주 구도심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다양한 창의성을 기반으로 정비하고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심의에서는 단순한 도시 경관의 의미를 넘어 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일선방직을 연결하는 역사문화 맥락을 토대로 '광주다움'의 연속성을 함께 살피야 한다.

길 건너 상업 지역인 누문 지구와 임-우동의 5600여 세대 전면 아파트 개발처럼 북동마저 3000세대 가까운 39층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야 할 만큼 광주광역시 인구가 대대 주택난이 심각한 상황인가?

금남로 대로변 양쪽으로 초고층 아파트로 배열된 원도심의 풍경은 어떨지 상상해 보자. 이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한번 건설된 초고층 주상 복합 대단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북동 정비 사업은 아직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다. 따라서 정비 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 아파트 개발업자의 사업성에 맞춰진 부동산 투자 사업이 아닌 '사전 공공 기획'을 통해 북동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경관과 상업, 업무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일자리와 놀거리, 볼거리가 풍부한 도심 관광 자원으로 특화시킨다면 어떨까?  
광주시는 기획 단계부터 사전 공공 기획을 통해 현상 설계와 공공 건축가 참여, 원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광주 원도심의 도시 건축 설계 방향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단지 아파트 개발로 인한 수퍼 블록이 형성되어 공간의 단절과 주민공동체의 폐쇄성을 가중시키고 도시 생태환경을 기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주다운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구도심을 설계해야 한다.  
북동 관련 경관 심의는 단순한 재개발을 위한 심의 과정이 아닌 향후 광주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환점을 만드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광주시장과 경관위원들의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판단을 기대해 본다.

社說

'야권 후보 단일화' 대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대선 판세가 안갯속인 가운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여론조사 방식의 야권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기 때문이다. 안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얽혀있던 숨겨진 접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안 후보는 단일화 방식으로 당원 투표를 포함하지 않은 100% 국민 여론조사를 들고 나왔다.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 리빙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안 후보는 "누가 더 미래를 이끌 적임자인지는 오롯이 국민 판단에 맡기면 경선은 복잡할 일도 시간 끌 일도 없다"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합의한 방식에 따르자"고 제안했다.  
그간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안 후보는 왜 갑자기 먼저 단일화를 제

안했을까.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그렇다"며 차리리 선제적 제안을 해서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교체 하는 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더 좋은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안 후보가 제안한 국민 경선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면서도 '아쉬운 점도 있다'고 털어놨다.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안 후보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므로 연대 가능성을 열어 두는 한편 국민 여론조사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대선판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특히 정권 재창출은 물거품이 되고 단숨에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단일화 성사의 관건은 안 후보 지지율이 앞으로 15% 이상 치솟을 수 있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화약고 여수산단 '죽음의 외주화' 차단해야

여수국가산단 내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에서 며칠 전 폭발 사고가 발생해 네 명이 숨지고 네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해 12월 폭발로 세 명이 숨진 지 불과 두 달도 안 돼 또다시 중대 재해가 터진 것이다. 희생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였다.

여수시 화적동 여천NCC 3공장에서 일어난 이날 폭발 사고는 공장 내 열교환기 정비를 마친 뒤 압력을 높이는 기밀테스트 도중 발생했다. 1t 무게의 열교환기가 뒹겨 나가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쳤다. 숨진 네 명 가운데 세 명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여수산단 내 이일산에서 폭발 사고와 함께 화재가 발생해 석유화학물질 저장고에 유증기 회수 장치를 설치하던 노동자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 역시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였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위

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맡기는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를 잇단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석유화학 공장의 설비와 정비는 주로 하청업체인 전문 건설업체가 맡는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반장을 통해 모집한 일용직이다. 이들은 공사 기간에 따라 하청업체와 계약을 한 뒤 현장에 투입되며, 현장 안전 관리 역시 하청업체가 맡게 된다. 이처럼 원천인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 정비를 맡기는 것은 임금 등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하청업체 역시 비용 절감에만 급급, 안전 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외부 하청에 맡기는 것부터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화약고'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여수산단의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노후 설비 개선 등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동북 공정'(東北 工程)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동북 3성(省)과 함께 수행했던 대규모 프로젝트를 말한다. 지린(吉林)·헤이룽(黑龍)·랴오닝(遼寧) 등 동북 3성(만주)은 물론 그들의 영토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고조선이나 고구려 등 우리의 고대사마저도 자신들의 지방 정부로 왜곡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덕일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는 이의의 '성호사설'과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에서 동북 공정에 맞설 수 있는 단초를 찾는다. 일제 식민사학은 고구려 동천왕 때 위나라

한데 이변에 중국은 동북 공정에 이어 '문화공정'을 시행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을 중국 소수민족 대표로 출연시킨 것이다. 이는 저들의 그러한 속셈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이를 문화공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과하다는 신중한 반응도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중국의 문화 침탈은 이번이 처음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2020년에는 절임 채소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 기구의 인증을 받은 것을 두고 김치 종주국이 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2017년 마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역사

문화공정

적으로 중국의 일부'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의 동북 공정이거나 문화 공정은 자신들이 세계 중심이라는 중화주의 시각에 기인한다. 이번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과 오심에 대국답지 못한 행태를 보인 중국은 역사 왜곡이나 문화 침탈 같은 '공정'(工程)을 추가 중지해야 한다. '논 뜨고 코 베이징'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올림픽 정신인 '공정'(公正)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